

한국 교회와 mammonism



mammon(mammon)은 부(富)를 뜻하는 아랍어 '마모나(mamona)'에서 유래한 성서적 용어로, 신약성서에서는 부, 돈, 재산, 소유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불의한 재물' 이야기(눅 16:9)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등장하는 '재물'이 바로 'mammon'이다. 이처럼 신약에서 mammon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하나의 우상 내지는 의인화 된 존재로 간주된다. 중세에는 mammon을 일종의 신 또는 악마로 이해되기도 했다. 따라서 mammonism(mammonism)이란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를 의미한다. mammon은 때로 '황금 우상' 또는 물신(物神)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 mammonism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질숭배 풍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다.

mammonism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다. 그것은 종교 안에서도 발견된다. mammonism은 사회와 종교 모두를 부패하게 만드는 강력한 반사회적, 반종교적 힘이다. 역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mammonism은 우리의 사회와 종교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mammonism의 풍조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체 내에 있는 mammon이란 우상을 깨뜨리고, 사회의 mammonism 풍조를 몰아내야 하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 mammonism의 역사

초대 교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유하는 공산주의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질을 숭배하고 재물을 탐

하는 mammonism의 흔적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관심의 초점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여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단을 배격하고 외부의 박해에도 의연히 대처했으며, 부의 축적은커녕 오히려 가난을 미덕으로 삼았다.

그러나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가에 몰수당했던 재산을 돌려받고 경제적 특혜를 누렸을 뿐 아니라, 가진 자들이 대거 개종하면서 교회는 점점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이 커지면서 교회 안에도 물질을 탐하는 풍조가 생겨났고, 돈으로 성직을 사고파는 소위 성직매매가 생겨나게 되었다. 전에는 박해를 견디는 것이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었고, 순교가 교회의 자산이었으며, 가난이 교회의 영적인 부였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고, 돈으로 성직까지 매매하는 부패가 생겨났다. 특히 감독 선거에서 신앙과 인격보다는 물질에 의해 그 자격이 결정되는 일이 많았다. 돈으로 매수하여 감독이 되거나 감독 선출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주는 일이 흔했으며, 이렇게 감독이 되면 권력을 남용하여 다시 부를 쌓는 일이 많았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재산가가 되었고, 부는 더 큰 부를 만들어내면서 더 큰 권력과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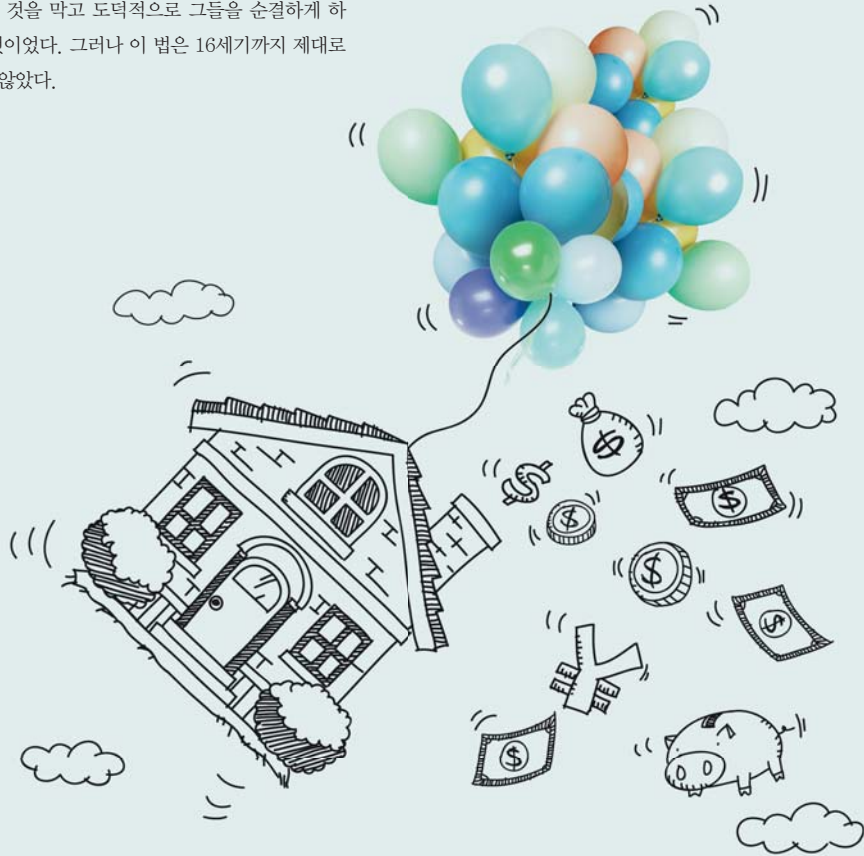
이러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수도원 운동이었다. 일찍이 4세기에 시작된 수도원 운동은 이미 mammonism에 오염되기 시작한 제도화된 교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것을 떠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하나의 몸부림이었다. 따라서 금욕적 엄격성을 지닌 수도사들은 더 이상 피



이원규 가리교회신학대학교, 미국 Emory대학교대학원(종교사회학 전공, M.A., Ph. D.)에서 수학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장, 한국종교사회학회 회장 역임하였다. 현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이다. 저서로는 「종교의 세속화」(1987), 「종교사회학」(1991),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1992),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1994), 「종교사회학의 이해」(1997), 「한국교회 무엇인가」(1998),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2000), 「한국 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2002),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2003), 「인간과 종교」(2006), 「침내라 한국교회」(2009),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2010),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2012) 등이 있다.

의 순교가 없었던 당시의 순교자들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수도원들도 물질에 오염되고 만다. 두 번째 반응은 14-15세기에 여러 종교회의들에서 성직매매 등의 약속을 금하는 교회법을 제정한 것이었다. 금권 약속, 혜택, 혈통, 친분, 호감을 이유로 성직을 매매하는 일을 금했으며, 돈을 받고 수도원의 요직이나 사제직에 임명하는 것, 돈을 받고 성례(세례, 성만찬, 고해성사, 안수, 결혼, 장례 등)를 베푸는 것을 금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없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반응은 성직자의 물욕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직자 독신제도(celibacy)가 제정되었다. 445년 교황 레오 1세에 의해 선포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의결된 이 법은 성직자가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재물을 탐하는 것을 막고 도덕적으로 그들을 순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16세기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성직매매의 전형적인 양상은 중세 교회에서 면죄부 판매의 형태로 나타났다. 면죄부 판매는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살 수 있으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즉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맘모니즘의 극단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면죄부를 사는 돈이 현금통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맘모니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에 루터(Luther)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러나 개신교도 맘모니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신교 교회들이 점점 커지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들은 점차 부유해졌다. 이러한 부는 교회로 하여금 물질 가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돈에 의지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영적, 도덕적 능력을 상실해 간다. 베버(Weber)에 따르면,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되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독특한 개신교 윤리 덕분에 점차 부가 축적되었고, 그 부가 사회로 환원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는 종교의 윤리적 지침을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점차 신앙의 힘은 물질의 힘에 밀려나게 되었다. 부가 증가하면서 교만, 분노, 욕의 욕망, 삶의 자만, 세상에 대한 사랑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종교의 형식만 남고 그 정신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웨슬리(Wesley)의 말은 맘모니즘에 물들어 가는 개신교 일반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한국 교회와 맘모니즘

한국 교회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 교회가 맘모니즘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제 그 현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맘모니즘의 흔적은 무엇보다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물량주의의 가치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회, 목회자, 교인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물량적 척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가 얼마나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인가, 목회자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교인들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그 조직의 운영 면에서 신도의 숫자, 건물 크기, 현금 규모 등을 비롯하여, 성직자의 사례비와 승용차의 모델 등의 물질적 지표가 종교적 성공을 가능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목회의 성공을 예산이나 교회 규모와 같은 물질로 평가하며, 물질적인 가치를 성공의 지표로 삼는 천민적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교인에 대한 평가도 현금 액수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돈에 따

라 교회 내의 직책이 부여되는 경우도 많아서 돈 없는 사람이 장로 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주일 출석, 전도, 구역예배, 성경 공부, 철야기도, 구역 헌금 등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어 구역별, 교구별, 지구별로 총점과 등수를 매기는 구역 통계표를 후보에 신고 시상하는 교회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교인의 믿음 생활을 수량화하여 수치를 등급화 한 구역 통계표는 마치 일반 기업체의 계산서나 실적 보고서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물량주의는 기복성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 현금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물질적인 축복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축복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금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중세 교회처럼 면죄부는 팔고 있지 않지만 현금을 많이 내면 물질적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설교함으로 현금을 더 많이 내도록 권면 혹은 강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금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아졌다. 할 수 있는 모든 항목과 구실을 붙여 현금을 내라고 하면서 복을 준다고 한다. 현금은 이미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럼에도 교인들에게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이 세상의 것과 거래하는 상거래 같은 행위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현금을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통해 신앙의 크고 작음을 판단한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인 현금을 ‘주고받는 것’, 그것도 몇 백씩 부풀려 돌려받는다는 ‘기복신앙의 추잡한 장삿속’으로 대치해 버리고 말았다. 현금봉투에 적힌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축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 현금시간, 목회자의 설교에서 반복되는 현금에 대한 강조는 현금을 점차 기복신앙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

기복신앙은 신앙을 물질 획득의 도구로 삼는 도구화의 결과를 수반한다. 수많은 무인이 신학교는 하나의 돈

별이 수단이 되고 있다. 무자격자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학위증, 목사 자격증을 파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교수진이나 건물도 없이 6개월, 1년 단기 코스로 목사를 배출해내는 통신 신학교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영적 부흥회(復興會)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흥회(富興會)로 둔갑하는 일도 허다하다. 그것을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기도원들도 있으며, 사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상당수 수용소식 요양기관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도 많다. 성서와 찬송가, 미션학교 성경 교과서, 교회학교 공과, 성경학교 교재 등이 연합사업의 영역에서 개별교단 사업의 영역으로 찢겨져 나가는 추세 역시 교리적 차이라는 명분 이면에 출판이익금 증가라는 실제적 목적이 주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앙의 도구화는 흔히 교회를 상업주의에 물들게 한다. 신유, 은사, 성령 충만, 사업에 실패한 분, 병으로 고생하는 분, 소원성취, 장수무병, 만사형통 등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성향을 자극하는 단어들, 부흥 집회의 홍보 팸플릿과 포스터, 교계 신문 광고 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바로 상업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의료, 교육, 언론,

출판 기관들이 애초의 종교적 목적을 망각한 채 자본주의적 이윤 활동에 일차적인 강조점을 두는 경우도 많다. 대형교회들이 같은 이름의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중앙에서 통제하며 체인화 하는 것도 상업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흥회 때 부흥사가 현금 액수를 불러가면서 '외상헌금'을 작성하라고 강요하며 손을 들게 하는 것은 경매장의 풍경과 비슷하다.

상회(上會)에 대한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혹은 그 외의 목적으로 교회 수입에 대한 이중장부를 만드는 일도 대형교회들에서는 흔한 일이다. 일반 사업체의 편법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라 하겠다. 교회의 관리와 운영의 성격도 재화의 획득과 축적이라는 경제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업체와 매우 흡사하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의 업적이 교인의 머리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교인의 증가와 현금이 얼마나 불어났는가 하는 교회 수입의 증대와 같은 양적 계산에 의해 평가된다. 교회의 평신도들은 기업체의 주주들처럼 교회의 목회자를 기업 경영자를 평가하듯이 평가하고, 목회자는 이러한 평가에 부응하여 교회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길' 목회지침을 세우고 전략을 꾸미는데, 이것은 흡사 마케팅 전략과 비슷하다.

한국 교회 맘모니즘의 극치는 무엇보다 성직매매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 개신교의 각 교단장 선거는 온통 돈 잔치로 물들어 있다. 예외 없이 향응이 제공되고 돈 봉투가 오간다. 교단의 선거 총회가 있는 날이면 투표권을 가진 이들에게 호텔이 숙소로 마련되고 푸짐한 식사가 제공된다. 이렇게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교단장이 되려고 하는 일은 성령을 모독하는 성직매매의 전형적 사례라 하겠다. 성직매매의 또 다른 형태는 교회를 사고파는 행위이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기도 하고, 후임자를 구할 때 교회 빛을 갚아 줄 수 있는 목사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 전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신도수와 재산에 따라 권리금을 얻어 매매하는 일도 있다. 각종 교회 관련 신문, 잡지에 줄지어 교회 매매 광고가 나오고 있다. 물론 돈을 주고 목사직을 사고파는 행위도, 성직자가 어떤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 혜택 혹은 그 외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성직매매이다.

한국 교회 맘모니즘의 또 다른 측면은 과소비와 사치 풍조이다. 교회건축 과정은 물론 예배당을 꾸미면서 가구와 악기, 조명과 음향기기를 값비싼 외제로 채우는 경우도 많다. 늘 비어 있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교회가 많은데도, 교계 지도자급 인사들의 모임이나 교회 관련 주요 행사들은 거의 호텔을 전전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이름뿐인 과시성 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낭비하는 일도 허다하다. 선교 활동이나 대회, 집회 등을 빙자한 대규모 해외여행도 빼놓을 수 없다. 성공한 목회자들은 경쟁적으로 최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한국 교회가 너무 고급화, 귀족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지금 맘모니즘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앞서 열거한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맘모니즘의 증상들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맺는 말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싹튼 경제주의와 이에 편승한 천민적 자본주의 풍조는 전형적인 맘모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도덕성의 근원은 바로 이러한 물질(物神)숭배 풍조이다. 사회 구석구석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맘모니즘이 깊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상실했고 사람들은 인격을 상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맘모니즘은 신앙에 가장 큰 적이며 맘모니즘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고귀함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맘몬이라는 우상을 깨뜨릴 사회적, 종교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교회는 사회의 돈 귀신, 맘몬 우상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다. 맘모니즘이 한국 교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한국 교회는 점차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면서 영적, 도덕적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 공신력을 잃어가면서 양적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모두가 맘모니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맘몬의 우상을 먼저 교회에서 내몰아야 한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참된 공동체로 새로워져야 한다. 물질 가치, 금전 가치보다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 도덕적 가치가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를 실천하며 이것을 사회에 전달하고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가 할 일은 첫째가 회개요, 둘째는 갱신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 그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맘몬이라는 우상을 깨뜨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